

불자 세상보기



김형중 문학평론가 동대부총교감

5월은 어린이날·어버이 날·스승의 날·부처님 오신 날 등 가장 소중한 가족과 감사해야 할 스승과 부처님의 은혜를 기리며 생각하게 하는 감사와 가정의 달이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있는 달에 5월 5일 어린이날에 가문비어린이 출판사에서 출간한 '10세 이순영 어린이의' 솔로강아지 '의 동시집에 실린 '학원가기 싫은 날'에 나타난 '엄마를 씹어 먹어' 등 잔혹한 내용과 함께 피투성이 어 고기(어머니)를 먹고 있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삽화의 폭력성을 보도한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충격과 격앙된 반응이었다. 동시로 적합하지 않다는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로 출판사의 사과 성명과 함께 전량 수거하여 폐기 처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문제가 된 '학원가기 싫은 날'의 동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어 구워 먹어/ 눈물을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 버려/ 머리채를 쥐어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 먹어/ 눈물을 흘리면 활아 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이것은 동시가 아니다. 변태 엽기적인 시이다.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옥에서나 있을 수 있는 악마의 시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이 땅의 학부모들이 통배가지를 둘러싼 짜증나는 날벼락이다.

고급에 아버지를 살해한 일은 있다지만 자기를 낳아 활아서 키워 준 어머니를 이렇게 잔인하게 표현한 글은 없었다. 더구나 10세 어린이의 동시라니 어안이 병병할 뿐이다. 이 시는 어린이의 글이 아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교육적으로 이 어린이는 어머니와 함께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할 내용이다.

말할 사회로 세상이 거처러지고 있는데 어린이가 어머니에 대한 금기 언어를 이처럼 거침없이 퍼붓는다면 그 폐악이 심대하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고, 말과 글이 있다. 금기어가 있다. 이 제어장치가 풀리면 말뭉치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 사회의 학부모들의 조기교육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어린이의 저항시로 보아야 한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으나 필자는 이 시를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뿐이다.

글은 생각의 집이다. 자신의 생각이 걸러져서 글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시는 인간이 창조한 언어문자의 결정체로서 아름다운 문자로 아름다운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여 독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예술의 한 분야이다.

동시는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꾸밈이 없는 순수한 생각과 아름다운 마음을 쓴 시이다. 그래서 동시는 어린이들의 천진한 마음이 그려지기 때문에 동시의 내용이나 표현 또한 그만그만 담박하다. 동시의 내용이나 표현 형식이 파격적이거나 충격적일 수 없다. 어린이는 미래의 시인으로서 자랄 그야말로 새싹이다. 새싹에서 쓰고 달고, 짭짤한 맛, 구수한 맛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거에서 송늬를 찾는 격이다.

펜의 힘은 칼보다 무섭다. 자신이 내뿜는 말과 글은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나 정식 유통과정을 거친 출판물은 더욱 그렇다. 이번 소동을 피운 동시집에 대

하여 어린 아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것은 마땅히 출판사와 출판을 주선하고 시 창작을 지도한 부모가 져야 한다.

뒤고 싶고 유명해져서 돈도 벌고 스포츠도 쏘고 싶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어린이가 날 넘어서 날다가는 떨어져서 넘어져 다친다. 이 아동은 자칫 잘못된 동시집의 출간에 대한 집과 굴대를 평생 쓰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쓰레기를 왕관이라고 착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말리 가려면 천천히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학교 친구들과 함께 동시집을 내기를 권한다. 오염되지 않는 어린이의 마음과 이웃과 친구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묻어 있는 합동 동인시집을 권하고 싶다.

여유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사랑스럽고 기특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어른의 욕심과 조급증으로 아이들을 쥐어짜지 말자. 부처님 말씀에 "무엇을 더 닦으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본래의 천진한 마음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라. 그러면 그대로 부처이다"고 하셨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통일·세계평화 선포한 특별한 '봉축'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여느 해보다 특별했다. 깨달음의 법석과 부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는 축제의 자리가 한데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5월 25일에 앞서 진행된 축제인 연등회와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한국불교 사상 최대 법석을 보여줬다.

조계종은 5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의 메인 행사인 '간화선 무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은 종단을 넘어 전국에서 운집한 30만 명의 불자로 가득 찼다. 한국불교의 힘은 사부대중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한 순간이었다.

조계종 총정진제 스님은 간화선 무차대회에서 철저한 공부로 통해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대중들에게 당부했고 방편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할 것을 전했다. 또한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마음 평화 수행법으로 '간화선'을 제시하는가 하면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희생된 영

령과 세월호 참사, 네팔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도 잊지 않았다.

불교적 통일 담론을 담은 '2015 불교 통일 선언'과 앞서 열린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채택한 '세계평화 기원문'이 간화선 무차대회를 통해 발표된 것은 '선(禪)을 통해 자신의 마음 자리를 밝혀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겠다'는 한국불교가 세계를 향해 던진 메시지였다.

간화선은 한국불교가 자랑하는 수행법이다. 하지만 대중화가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특히 재가 수행자에게는 끊임없이 화두를 들고 의심해야 하는 간화선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총정진제 스님은 그간 꾸준히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신학자 폴 니터 교수와의 대담도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이웃 종교인을 대상으로 법어를 설한 것도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행보였다. 이제는 후학들이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역량을 이어 가야 한다. 그래야 이번 무차대회는 완성될 수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망나누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5월 12일 지구총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에게 네팔 돌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에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김근자(90) 이옥선 할머니(89) 등 3명이 동참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명이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과 나눔의집 후원금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어서 그 감동이 배가됐다. 할머니들의 성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시들도 아픈 기억속에서 고통스럽게 사시면서 더 힘든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태겠다는 그 숭고한 마음이야말로 보살심의 발현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번 성금모금에 참여한 할머니들은 네팔 지진 발생 직후 고통 받는 이재민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선뜻 내놓겠다는 뜻

을 밝혔다고 한다.

모금 소식도 흥분했지만 할머니들이 한말이 더욱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우리도 피해자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전 세계인들의 도움을 받아 희망을 갖게 됐으며 작은 정성이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은 네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할머니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자신들이 받은 것을 회향하겠다는 메시지도, 할머니들의 이타적 실천은 바로 부처님이 우리곁에 오신 참의미이기도 하다.

봉축을 맞아 들려온 이 아름다운 울림이 온 사방세계에 퍼져 인류가 동업중생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대중들에게 되새겨 지길 바란다. 아울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실의에 빠진 네팔 국민들도 우리 할머니들의 희망나누기 소식을 듣고 부디 오후기처럼 다시 웃음 일어시길 발원한다.

봉축수상



현진 스님 청주 마사주지

지금 살고 있는 절로 거처를 옮기고 네 번째 맞이하는 불탄일이다. 사월초파일에 즈음해서 활짝 피는 불두화(佛頭花)향이 좋아서 여기 오자마자 목욕을 구해 와서 법당 뜰에 심었다. 올해는 봉축이라도 하듯이 때맞추어 만개하였는데 눈송이를 몽쳐 놓은 듯 수백의 향연이 더 곱다. 봄꽃이 차례차례 피었다지고 난 뒤 눈부시게 그 신비한 생명을 여는 불두화는 오월의 꽃이라기보다는 봉축의 꽃이라 불러야 할 것 같다.

며칠 전 밤새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 나는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소담하게 핀 불두화 가지가 꺾이고 쓰러질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에 여기저기 흩어진 꽃가지들을 정리하면서 간밤의 불청객이 원망스러웠다. 마치 단정하게 손질한 머리가 엉망으로 엉클어진 것 같아서 오늘 저녁나

절에도 전지가위로 손을 보고 들어왔다. 가지 부러진 불두화는 내방으로 옮겨와서 화병에 담아 두었더니 연분홍 연등과 잘 어울린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꽃 쏘이기를 꺼낸 이유는 자비심을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매사의 작은 눈길에도 자비심이 결여되어 있다면 부처님 오신 뜻을 등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 교리 공부를 할 때는 부처님은 도솔천에서 하강(下降)하셨다고 배우지만 엄격히 따지면 자비심에서 오셨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열반경 범행품에 '모든 보살과 여래는 자비심이 근본이다'는 표현이 있다. 따라서 부처님은 그 어디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비심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명확한 의미는 자비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세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부처님을 오신 날을 봉축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일상에서 자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뜻이기도 하다. 불교의 목표는 개인적으로 지혜를 완성하는 일이지만 그 지혜는 자비심으로 실현될 때 수행의 완성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종교든 지혜만 있고 자비심이 없다면 날개 잃은 불구자 신세나 다름없다.

인생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성불, 행복, 평화, 건강, 출세 등 이러한 목표와 소원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이것은 자비심이 근원이 될 때 생의 보람과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은 국민소득 삼만 불 시대를 살고 있는 물질적 풍요 속에 있지만,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보다 더 불행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된다. 경제학자 잉글하트 교수는 개인 소득이 만 오천 불 이상이 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지수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물질의 충족이 보상에 주는 행복의 한계는 분명해진다.

사월초파일이 다가올 때마다 빈자일 등(貧者一燈)의 가르침을 다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 일화를 일찍이 경전에 소개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따져 물을 것도 없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욕심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 우리 삶은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가난해질 수 없는 인생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뜻이다. 따라서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의 삶이 행복을 방해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연등 불빛 아래서 새롭게 배우아야 한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왜 행복하지 못한가?'를 질문하고 그 대답을 부처님 오신 뜻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자비심과 만족이 없는 삶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요인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소유지족의 가르침은 이 시대에 더 유효한 법어(法語)일지도 모른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나라 때의 걸출한 스승이었던 향엄 선사(향엄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 급년의 가난이 진짜 가난이다)라는 법어를 남겼는데, 여기에서 재물이 부족하여 가난한 것은 가짜 가난이고 진짜 가난은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가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번 사월초파일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더더욱 가난해져야 한다.

연등 아래에서 더 가난해져야 한다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빛고을 관등회. Includes a large image of a pagoda, a list of events (e.g., 점등식, 전통등 전시회, 관등법회), and a list of sponsors (e.g., 광주전남불교연합회, 광주광역시청).